

與野 ‘강력한 인적 쇄신’ 한목소리

“내각 총사퇴·靑 전면개편해야”

세월호 참사 대정부 현안질의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세월호 참사의 수습을 위한 강력한 인적 쇄신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국가 개조와 혁신의 출발은 대대적 인적쇄신이어야 하고, 그 내용은 현 내각의 총사퇴와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새 내각은 내 편, 내 편 따지지 말고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야당 성향의 인재까지도 고르게 등용하는 대 평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의원은 “대통령의 사고가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천방향이 중요하다”며 “총체적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할 보좌진의 총사퇴 등 인적 쇄신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책을 두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대통령 담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 정쟁한다면 국민을 더 힘들게 할 것”

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은 여야 모두 열린 자세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명희 의원은 “관피아 척결과 국가 개조는 정부나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담화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에 “내각은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다 통감하고 있다”며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고 쇄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말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도 “사표를 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질문에 “수습 되는대로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종교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과 기업 비리에 관한 문제”라며 “도피 의사를 갖고 있어 모든 역할을 결집해 외국과 공조까지라도 해서 끝까지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경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들의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부실은 항과 관련된 제반 감독책임 및 구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꼼꼼히 챙겨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순태 칼럼

한승원 형, 자네가 지난번 칼럼에서 “광주가 시험에 들었다.”고 한 것에 참으로 깊이 공감하네.

광주를 사랑하는 늑은이로서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네. 어제는 무등산 밑 조출한 숲에서, 등산복 차림의 70대 노인과 20대 젊은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공천 결과를 놓고 입씨름 하는 광경을 보았다네.

노인 : “누가 봐도 밀실 야합 낙하산 공천이야. 이걸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란 말이야.”

청년 : “경선으로는 개혁적인 인물을 선택할 수 없지요. 이젠 광주에 새 인물이 필요해요.”

노인 : “정치적 비중으로 따지면 강시장이나 이 의원만큼 무게 있는 인물이 없지 않은가.”

청년 : “장관, 국회의원 다 했으니 이젠 중앙에서 활동하고 광주는 새 인물을 키워야지요.”

두 사람의 논쟁을 보면서 나는 광주 민심이 안철수 지지와 반대로 분열되고 있음을 알았다.

안철수에게 소리치고 계란을 던진 행위가 광주 전체의 민심은 아니지만 상처는 상처지.

당에서 조차 고립무원 처지가 된 안철수는 합당을 후회할지도 모르지. 혹자는 정치초년생 안철수가 정치고단자들에게 당한 것이라고 하더군.

안철수는 지금 당 안밖으로부터 파상적인 공격을 받고 있네. 언론에서조차 안철수만 집중공격을 하더군. 안철수 죽이기에 힘을 모으는 것처럼 느껴졌네.

이제 광주 선거는 윤장현의 싸움이 아니라, 안철수-김한길 두 당 대표의 싸움이 되었네.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하든지 거부하든지 해야하네.

광주는 안철수의 마지막 보루가 된 셈이지. 광주에서 지면 안철수는 정치적 뿌리가 뽕하게 되고 당에서도 밀려날 수 있지. 광주가 그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게 되었다네.

안철수가 무너지면 정권교체 대안 세력 한 사람을 잃게 되는 거네. 이별

안철수가 외롭다

2년 전 새정치 아이콘 안철수의 등장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자 사람들은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었다더라면 당선일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지.

또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문제인을 지원했다면 문제인이 당선됐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만큼 안철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대안세력이었다네.

대선 패배로 민주당이 지리멸렬, 지지율이 바닥이었을 때도, 안철수 신당 호남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훨씬 높았지 않았는가. 그만큼 안철수는 호남에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었네.

마침내 50대 50의 지분으로 합당을 했다. 그러나 안철수는 17개 광역단체장에서 겨우 광주시장 한 곳을 전략공천 했을 뿐이네. 안철수는 실리면에서 완전 패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도로 민주당’이 되었지 않은가. 안철수의 새정치 꿈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단단한 기득권의 벽을 뚫으려다 만 신창이가 된 거지.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당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는가. 5·18 때 광주에 온 안철수는 봉변까지 당했다네. 물론

때 광주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략공천 때문에, 오랫동안 애증으로 품어온 민주당의 몸통을 잘라버려야 하는가?

어쩌다가 광주가 이런 고육계(苦肉計)의 뒷에 걸렸는지 모르겠네. 소부·허유(龔友·許由)라면 어떤 선택을 하였는가.

한승원 형, 금강경 계승에 춘란추곡(春蘭秋菊)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봄에는 난초요 가을에는 국화로, 각자형향(各自馨香)이라, 난초와 국화는 모양도 향기도 각기 달라,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지.

춘화추월(春花秋月)도 마찬가지로. 난초도 국화도, 꽃도 달빛도 다 소중한데 어느 것을 특별히 좋아할 수가 없지 않은가. 허나, 진정 하늘의 뜻이라면 나는 무구 순결한 난초를 택하겠네.

이백(李白)이 답십심매(踏尋尋梅)에 빠진 맹호연(孟浩然)에게 매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화사하거나 요염하지 않고 너무도 정치(淸致)하여 만고에 쌓인 티끌을 깨끗이 씻어 줄 것만 같아서”라고 답하지 않았던가.

<소설가>

“세월호 선원이 국정원에

사고 보고했다고 들었다”

정홍원 총리 밝혀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참사 인지와 관련,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 전화로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보고는 세월호 선원이 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정원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알려진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 총리는 “세월호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세월호 매뉴얼에도 그게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매뉴얼에 의해 (선원이 국정원에) 전화했다는 그런 정도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누구로부터 관련 얘기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대통령 아직도 국민 마음 몰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대통령의 눈물을 봤지만 허탈했다. 대통령께서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모르시는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국민담화에서)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해양경찰청 해체 방침에 대해 “해경 해체라는 충격요법은 대안제시의 핵심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이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일로, 공론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어 “국민여론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야 한다는 고집을 국회가 받아들인 게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새누리당은 조사범위에 청와대를 빼지고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짚어보는 게 진상조사의 핵심”이라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박지경기자jpark@

여야, 세월호 진상조사위 유가족 참여 합의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진상조사위 참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필요할 때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야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여·야·정, 전문가와 함께,

필요하다면 유가족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전체를 국정조사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도 청와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창사 62주년

행복건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경제의 든든한 힘은
모두의 일터에서 시작됩니다.